

경마장 수의사의 역할과 사명

李 始 永*

머릿 말

우리나라에서 경마(競馬)는 일반 국민은 물론 일반 수의사들에게도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의학 교육에서 말이 거의 제외되고 있으므로 말을 이용하는 경마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수의과대학에서도 경마장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말의 질병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은 부문이 많다.

우리의 수의학 발전은 축산의 발전과 병행되어 온지라 국가의 축산정책과 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에는 말이 전쟁용품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어 당연히 수의사는 말이라는 실체와 말을 위주로 수의학 교육을 시킨 바도 있으나 이제는 말이 가축이나 아니냐를 놓고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분명 우리의 축산법에는 가축의 종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런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실로 우리 모두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인 때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축산은 먹기 위한 축산정책으로 발전되었고, 거기에 부수하여 수의학도 그 쪽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내가 대학을 다닐때만 해도 우리의 축산정책이 확고한 것이 없기에 교육과정도 갈피를 잡지 못하여 과거 일본이 하는 식으로 주로 말을 상대로 공부를 하였는데 그것도 말이라는 동물은 알지도 못하면서 교과서에서만 배워오다가 현실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았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곧 잊어

버리게 되었고, 새로운 분야인 먹기위한 축산인 소와 돼지 또는 닭으로 방향이 바뀌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유난히 발전된 것이 애완동물이기에 개나 고양이 쪽으로 눈을 돌려, 시내에서 개업하는 수의사는 모두가 애완견 전문수의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중에서도 일부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던 말쪽으로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취직의 수단으로 마사회의 문을 두드린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30여명이 넘는 수의사가 경마장에서 밥을 먹고 있으며 일반 수의사들이 생각하는 말의 진료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마와 수의사

고대경마는 차치하고서도 현대경마는 우리의 역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1700년경에 영국의 왕실에서 서로 자기 말이 우세하다고 주장하여 실제 겨뤄보자고 한 것이 오늘날 경마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구경꾼이 있기 마련이고 구경꾼은 서로 자기의 판단 아래 어느 말이 이길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내기를 하였고, 마주는 보다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긴 말들의 후손을 가지고 다시 내기를 하다보니 경마는 후대검정의 장소로 이용되게 되었다.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기판으로 몰려들어 이들을 수용하다 보니 일정한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재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때는 수의학이 학문으로서 분과

* 한국마사회 재결실장

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무나 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수의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이 제대로 잘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는지를 살폈을 것이고, 경주후에 다리를 절면 왜 저는지를 조사했을 것이다. 말의 개체감별도 물론이고 말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특정인인 수의사가 아니고서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마가 기업화되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돈이 걸린 경기인만큼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장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규 수의사가 필요하게 되고, 이들 수의사는 경마장에 고용되어 경마집행사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진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의와 축산이 분업화가 되어 있고, 경마장에서도 분업화를 피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은 곳이 말에 관한 일이다. 물론 우리 경마장에도 많은 축산인들이 있으나 고유의 업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더 많이 종사하고, 말에 관한 것은 거의가 수의사가 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욱 분업화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말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이 사양관리이든 조교에 관한 일이든 모두가 수의사가 관여한다. 이제는 말이 달리는 주위에 관해서도 수의사가 설계 및 관리하고 있으며, 경마진행간에 감시감독을 하는 재결이라는 업무도 수의사의 권한중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으며, 경마를 편성할 때도 꼭 수의사가 입회하여야 함은 두말할 것이 못된다.

경마의 진행과정과 수의사의 역할

말의 진료업무

경마가 열리지 않는 날의 진료담당 수의사는 수의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경마의 진행과 연결되어진다. 말의 외상을 치료하기도 하고 갑자기 발생한 산통(疝痛)을 치료하거나 경주도중에 골절이 생긴 말을 수술하거나,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는 마방에 돌아 다니면서 말의 위생관리사항을 점검하기도 하고 모기를 잡기 위해서 소독약을 뿌리거나 구

서(驅鼠)작업을 감독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마와 연결되어야 함으로 예방주사를 놓더라도 이번주에 출주할 말인가 아닌가를 체크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진료수의사 역시 출주할 말이라면 금지약물(禁止藥物)의 대상이 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사용시에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조교사(調教師)가 출주코자 하여도 이미 제외 조치를 시키게 된다.

경주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동물이어서 진료진수도 자연히 운동기질병(運動器疾病)이 단연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다음으로 많은 것이 외상이다. 이는 다른 가축병원의 수의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운동기질환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할 것이지만 경마장 수의사는 입사일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운동기질환이다. 경주마들은 운동기질환이 가장 많고 다음에 외상, 호흡기질환의 순인데 일종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다.

운동기질환은 심한 것은 골절에서 부터 경미한 관절염이나 근통도 여기에 포함되며 크게 나누어 골절이나 골절환, 관절이나 관절주위의 이상, 각종 건(腱)이나 인대(靭帶)의 이상, 근육통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은 네 발로 걸음으로써 정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마련이어서 파행진단(跛行診斷)은 경마장 수의사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과제이다. 파행을 한다면 다리의 아래 부분인가 혹은 어깨부위인가, 혹은 건에 이상이 있는가 관절에 이상이 있는가 등을 세밀히 살피서 진단해야 한다. 또한 출주할 말이라면 경주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마체검사(馬體檢査)라는 과목이다.

마체검사는 수의사의 고유의 권한

경마장에서 마체검사는 파행진단뿐 아니라 출주마의 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목중의 하나이다. 경마에 출주하는 말은 한달에도 몇번씩 검사를 받는다. 제일 먼저 입식이 될 때에 전염병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검사에서 부터 그 말의 개체감별을 위해 가가가 어디 있으며, 낙인(烙印)은 어떤 형태인가, 몸전체의 색깔이 갈색이

나 흑색이나 혹은 네 다리에 흰색반점이 어느 부위까지 걸쳐 있는가 혹은 어릴때 다친 흔적이 없는가, 말 발굽은 정상적인가, 걸을때의 지세(肢勢)는 어떠한가가 처음받는 마체검사의 항목이다.

경주마가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훈련을 받지 않을 때의 말은 걸음걸이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먼저 평보(平步)와 속보(速步)등을 배우면서 사람에게 따르는 복종심을 배워주게 된다. 그 다음에 달리는 연습을 주로에서 하게되는데 이때 수의사는 담당 조교사나 혹은 마주에게 훈련의 강도 등에 대하여 조언해 주게된다. 필요하다면 혈액을 채취하여 컨디션을 실험실에서 판정하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경주마를 만들게 된다.

물론 발주기(發走機)에 진입하는 요령도 교육을 받아서 발주검사(發走檢査)를 하게 될 때도 수의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옆에서 지켜보아야할 뿐 아니라 발주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말은 그 이유를 살피고, 조교가 불충분하다면 다시 조교를 시키도록 한다. 발주검사에 합격이 되면 다시 능력검사(能力檢査)를 받게된다. 물론 발주기에의 진입도 좋아야 하지만 일정시간 내에 일정거리를 주파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경마장에서는 1000미터 주행에 1분 9초 이내에 들어와야 능력검사에 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때도 수의사는 말을 계속 관찰하는데 주행중에 옆으로 사행(斜行)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조교가 제대로 안된 경우와 말의 나쁜 버릇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의사는 발주위원이나 재결위원(裁決委員)들과 함께 그 말의 성격을 파악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발주검사나 능력검사 모두 출주하기 전에 수의사의 마체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혹시 검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몸의 컨디션이 좋지않던가 심한 파행이나 나쁜 버릇이 사전에 발견되면 출주취소(出走取消)가 되어 경주에 임할 수 없다.

일단 경주마로서 경마에 출주하게 되면 경마당일에 몇번 수의사의 마체검사를 받게된다. 당일 아침에 약물검사(藥物檢査)를 위한 검사재료

채취를 위해 수의사에게 이끌리어 오면 수의사는 먼저 그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소정의 혈액을 채혈하고, 걸음걸이를 살펴서 경주출주에 이상이 없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만일 심한 파행이 발견되거나 지나치게 침울 혹은 흥분하였다면 다시 몇번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경주출주를 허용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첫번째 마체검사에서 통과되었다면 정해진 시간에 출전대기장소에 있는 수의위원의 앞으로 이끌려가 다시 체중을 계량하게 되고 수의사에 의한 육안검사를 받게되며, 발굽도 정상적인가 혹은 정해진 편자를 정착하였는가를 검사받고 장안소(裝鞍所)라는 곳으로 발주 70분전에 옮겨지게 되는데 역시 당해말이 틀림없는가를 사진과 특징을 기재한 마적부(馬籍簿)와 대조하여 확인을 하게된다.

장안소에 있는 마방에서 약 40분간을 계류하게 되는데 이의 목적은 경주 출주전에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혹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 말의 컨디션을 고객에게 공개하기 위함인데 이의 감시도 수의사가 맡아서 하게된다. 이때도 말의 상태를 계속 살펴서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간내에 약물검사실에서 검사결과가 통보되어 만약 양성(陽性)이 나왔을 때는 그 말은 즉시 취소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조교사나 혹은 조교보에 의해서 안장이 지워지고 손님에게 선을 보이는 단계 직전에 안장이 제대로 지워졌나를 한번 체크하고, 기수가 말을 타고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장안소를 출발시에 다시 한번 말은 수의사 앞을 통과하게 되고, 지하의 수의위원실을 통과시에 또다시 수의사 앞을 통과하게 된다.

경주를 위해 말에게 착용하는 각종 장구의 무게는 검량위원(檢量委員)이 담당하게 되지만 장구가 제대로 장착이 되었는가 혹은 필요없는 장구들은 없는가는 수의사가 체크하게 된다. 특히 말의 습성과 관련된 각종 가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 이는 부정한 고객과 연락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의사가 관장하

는 이유는 말의 나쁜 버릇을 수의사가 체크하기 때문인데, 소리에 예민한 말은 귀가면을, 이상한 물체를 보고 잘 놀라는 말은 눈가면을, 달리는 도중에 앞말이 튀긴 흙이 얼굴에 맞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말은 단순가면이라 하여 얼굴만 가리게 되는데, 이의 등록과 확인을 하여 경마 당일에 고객에게 공표를 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경마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말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건염에 걸린 말인데 이를 이용하여 부정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말의 카드를 찾아 병력을 체크하고, 실제사항을 체크하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일단 주로(走路)로 나간 말은 감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들의 일거일동을 마장취체(馬場取締) 수의위원이 모니터로 감시를 하고 있고, 6층의 재결실의 수의사에 의해 계속 감시를 받게 된다. 발주지점에 도착하면 거기에 또 다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말들을 맞이한다. 발주기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주담당 수의사는 모든 말에 대하여 혹시 이상한 것이 없나하고 눈을 부라리게 되며, 발주기 진입상태 혹은 재발주(再發走)를 하게 될 경우 재발주 시간을 발주 수의사가 정하게 된다.

가령 10두가 출주하여 발주기 안에 10두가 들어갔는데 발주위원이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어느 한곳의 발주기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는 다시 발주를 하는데 어떤 것은 몇백미터를 달린 말도 있고, 발주하지 못한 말은 편안히 있었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서 제일 멀리까지 달인 말의 심장박동상태를 체크하여 그 말의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에 발주를 시키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경마가 진행되는 동안은 수의사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찰하게 되고, 만일 경주중 골절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경주를 진행하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 마장취체 수의위원이 달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되며, 정상적으로 달린 말도 다시 수의위원 앞에서 어디 상처난 곳은 없는가 마체상체는 이상없는가를 체크하고 재결실에서 지정하는 말과 1착 2착 3착말에 대하여 경주후 약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위하여 뇨(尿)를 채취하도록 담당 조교사에게 지시하고, 검체채취를 담당하는 수의위원은 이들 말을 뇨채취마방으로 인도하여 뇨를 받든가 채취가 곤란하거나 지연되면 타액이나 혈액을 채취하여 봉인후 약물검사실로 이송하게 된다.

경주중에 발생한 상처나 혹은 비출혈(鼻出血) 말에 대해서는 재결에 통보하고, 적당한 치료를 함으로써 당일의 경마가 종료될 때까지 경마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하는 일이다. 방역을 담당하거나 연구업무종사자, 장제 담당자, 진료 수의사 등이 모두 경마일에는 이런 일을 하여야 한다.

쇼맨십도 가져야 한다

경마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각종 검사를 하는 바 이는 진정으로 말의 건강을 검사하는 업무도 있지만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이므로 고객에 대해 일종의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 즉, 수의사가 저렇게 철저히 검사를 하니 고객들은 믿어 달라는 것이다. 경마일에 모두가 정상위치에 대기하면서 놀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눈은 항상 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중 가장 완벽하게 검사하는 곳은 마사지역에서나 마필보건소, 관람대 지하에 있는 마체중검량을 하는 수의위원실 주변이라 할 수 있다.

장안소에서 말에게 무슨 이상이 발견되면 그의 처치는 고객이 보지 않는 지하실로 끌고가서 하게되며 모든 결정은 지하실에 있는 수의위원들이 수행하게 된다. 장안소에 있는 수의위원만 해도 고객이 보는 앞에서 말들을 관찰하는 척하는 것은 많은 관중이 말들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또한 중계용 카메라가 열심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장외 경마고객에게도 보여주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장안소에서 주로로 나가기 위해서 말들이 지하로 접어드는 곳에 하얀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한명 꼭 서 있는데 이는 카메라가 바로 그 지점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이 발견시는 즉시 지하실에 있는 수의위원에게 연락이 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경주중 사고가 발생하여 말이 주로에서 절뚝

거리고 있을 때 마장취제 수의위원이 앰블린스를 타고 달려가는 것도 모두가 대고객용이라 할 수 있다. 마체의 외부적인 상황판단은 하겠지만 경주를 달리던 말이라 흥분하여 있으므로 청진기를 댈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말을 말 구급차에 실을 때는 관중이 볼 수 없도록 천으로 가리기도 한다. 경주중 진료소로 실려간 말은 대개가 골절 사고이므로 절박진단을 하게된다.

발주지점에 있는 수의사도 역시 고객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드시 흰 가운을 입는다. 주로에 있는 유일한 수의사이므로 그의 업무는 장안소에 있는 수의사 보다 막중하다. 재발주시간을 측정하여야 하고, 말이 발주하기전에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행동은 고객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고, 고객은 수의사가 최종확인하는 것만으로 안심을 하게되고 시행체를 믿게되는 효과가 있다.

재발주시간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청진기로서 심박동상태를 측정하여야 하겠으나 몇 백미터를 달리던 말이라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서 마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때 수의사는 재치를 발휘하여 실제로는 말의 호흡을 헤아려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말의 등에 탄 기수에게 말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경주의 감시기능

관람대 6층에 자리잡고 있는 재결위원실(裁決委員室)이란 곳이 있다. 이곳은 한마디로 경마의 사령탑이라고 하는 곳으로 경마의 진행간에 일어나는 일을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도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장안소에서, 수의위원실에서, 발주에서 혹은 마장취체에서 오는 여러가지 보고를 접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일단 지하 수의위원실에서나 진료소에서 발의가 되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재결위원이 가진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이며, 수의사는 상황을 재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취소를 한다.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재결의 수의사도 망원경으로 경주전개를 살피고, 끝나고 나면 심의

실(審議室)로 자리를 옮겨 7개의 카메라가 잡은 비디오로서 경주전개를 다시 살피는데 재결위원의 구성은 수의사와 과거에 기수나 조교사를 하였든가 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기수들이 정상적인 기승법(騎乘法)으로 기승을 하였는가 혹은 부정적인 방법인가 혹은 다른 말의 진로를 방해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게되며 이런점이 발견될 때는 해당 기수를 심의실로 호출하여 비디오를 직접 보게 하고는 책임추궁을 하게된다. 이때 기수가 잘못했는가 혹은 말이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대개 기수는 말에게 모든 핑계를 대개된다. 그러므로 즉시 지하에 있는 수의위원에게 말의 상태를 관찰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말에게는 하등의 이상이 없다면 기수의 잘못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대개는 지하에 있는 수의사가 말이 경주를 하고 지하로 들어오면 일단의 마체검사를 하여 이상여부를 보고하게 되나 기수가 특별히 말과의 관계를 우길때는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수의위원실에서 재결로 보고되는 것은 대부분이 경주중 발생한 외상이며 때로는 비출혈(鼻出血)의 상황이다. 비출혈은 말에게 경주중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엄격히 다루게 된다. 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조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말에게서 비출혈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그런 추정을 하나 어떤 책을 보면 경주마는 70퍼센트 이상이 폐출혈(肺出血)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도할 경우에 비공으로 혈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한번 비출혈을 나타내면 계속해서 습관성으로 될 수가 있으므로 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출주를 제한하게 된다. 1회 처음 발생시는 40일간의 출주정지(出走停止)처분을 받게된다. 이는 조교사에게 일종의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다. 즉, 말의 조교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출혈이 생겼으므로 출주기회를 박탈함과 아울러 휴양으로 비출혈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조치이나 우리 경마장의 경험으로는 비출혈이 한번 발생한 말은 40일후에 출주하여도 90퍼센트

이상이 2차 출혈을 하게된다. 그때는 다시 80일간의 출주정지를 시키고, 3차에서는 120일간의 정지를 시키고, 그 이후도 발생시는 영원히 경주마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핸디캡퍼와 수의사

핸디캡퍼(Handicapper)는 말에게 부담중량(負擔重量)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말은 경주중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달려야 함으로 말이 가진 전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서 기수의 몸무게와 말의 속력과는 상당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3세 암말일 경우 안장이나 기수의 몸무게를 합쳐서 53kg, 슷말일 경우 54kg이 기본 부담중량이지만 능력이 좋은 말만 때면 우승을 하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능력이 좋은 말에게는 부담중량을 더 하여주고 못한 말은 감해줌으로써 우승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해 주는 것으로서 경마라는 흥행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핸디캡퍼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말이 주로에서 연습을 할 때 망원경으로 누가 조교를 하는가 조교의 강도는 어떠한가 등을 체크하여 실제로 경주시에 전개상황을 일일히 기록 및 분석을 하여 다음번 경주에 어느말에 대해서는 부담중량을 더해 주고 어떤 말은 감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역시 오랫동안의 경험이 중요하고 말을 알아야 함으로 수의사와 경마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맡고 있다.

경마당일에는 6층 재결실 옆에서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경마진행상의 말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기록은 몇초인데 1착과 다른 말과의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를 기록하고 다음번 출마표에 전날의 경주전개상황을 공개하여 주게된다. 핸디캡퍼는 조교사나 기수들에게 미움덩어리라 할 수 있다. 부담중량을 더하여 주지 않으면 무난히 1착을 할 수가 있는데 놓쳤다고 불평을 하는데, 부담중량을 감해주어 1착을 하게된대 대해서는 고마워 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담당 수의사는 심지어 어떤 말이 최근에 진료소에서 무슨 병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혹은 평소의 기왕증(既往症)은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경주 출주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세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경주가 끝나고 재결심의실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들은 재결실에 가서 참고사항을 재결위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경주후에 재결위원 및 수의위원과 함께 출주마에 관한 마체검사도 실시하고, 부담중량을 체크하는 검량실에 들러 기수가 부당하게 규정중량을 어겼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경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자가 있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 봐야 한다.

핸디캡퍼가 경주 편성시(編成時)에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경주질(競走質)에서 나타내게 된다. 각 경주에 출주하는 한마리 한마리에 대해 세밀히 관찰하여 핸디캡을 부여하였다면 그 경주는 결승선에 골인시에 아주 난전을 일으키게 된다. 거의 비슷하게 입선함으로써 육안으로 판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진판정을 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아주 잘된 핸디캡 경주라면 고객이 투표하는 예상 배당금(配當金)이 전부가 같아야 하고 결승선에 들어 올 때는 모든 말이 동시에 들어와서 우열을 가리지 못해야 하나 말이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그런 이론적인 수치는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경마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핸디캡퍼는 이론적인 수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을 관찰하고 말이 가진 변수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객들은 자기가 돈을 걸은 말이 아슬 아슬하게 이겼을 때는 더욱 흥분하지만 아슬 아슬하게 패했을 때는 돈을 잃어도 기분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마의 묘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도 경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

경주중에 말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 자동차가 주행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유사하다. 다른 말과 충돌하던지(정면충돌은 있을 수 없으나 조교중에는 발생할 수가 있다) 충돌로 인하여 말이 넘어지던지 혹은 기수가 낙마하던지 말의 뼈가 골절이 되던지 혹은 다리의 인대나 건(腱)이 자기 체중의 과부하로 단열되던지 혹은 다른 말의 다리가 부딪쳐서 말의 발굽에 부착하고 있는 편자

에 의해 건이나 인대가 단열되던가 하여 경주를 기권하던가 결승선은 통과하였지만 심한 파행을 일으키게 되면 일단 말은 앰블런스에 실려 진료소로 이송되고, 이 말에 대해서는 X-선 진단을 비롯하여 각종의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결과 며칠을 두고 더 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경우나 일시적인 현상일 때는 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료가능성이 희박한 골절이나 탈구 혹은 건이나 인대의 단열이 왔다고 진단될 경우는 입원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에 실려 도살장으로 떠나게 된다. 이때 말은 수의사가 발부한 절박진단서(切迫診斷書)를 가지고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게 된다.

경주중 사고로서는 종자골(種子骨)골절이 가장 많으며, 이는 말이 달릴때 심한 굴신(屈伸)으로 구절의 관절이 최대한 구부러지므로써 지골과 중수골과를 연결하는 인대나 건이 종자골에서 지주역할을 하는데 건은 워낙 질겨서 끊어지지 않고 종자골이 횡(橫)으로 절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腱)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구절(球節)부위는 칼구가 되고 말은 걸음을 걸을수가 없게 된다. 종자골은 우리의 엄지 손가락보다도 적은 뼈가 구절의 바로 뒷편에 붙어 있는데 종(縱)으로 골절되는 예는 없으며 이를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

시속 60Km로 말이 달릴 경우 네다리가 모두 한꺼번에 땅에 닿이는 경우는 없으며 각 다리가 하나씩 착지(着地)하게 됨으로써 순간 중력가속도인 50톤의 힘을 다리 하나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힘을 견딜려고 말의 중수골은 연약해 보이면서도 내부에는 골수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골질화 되어 있으며, 구절의 굴신이 심하여 종자골이 땅에 닿을 정도로 구부러 지기도 한다. 종자골 골절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러한 힘때문에 구절 자체가 탈구가 일어나고, 구절주위의 관절이 망가지거나 중수골이나 제일지골에 골절이 생기게 된다. 건 단열이나 종자골 골절 모두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단열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그외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는 모든 뼈가 해당이 되나 중수골이나 중족골, 지골 등이며 어떤 경우는 천추나 요추의 골절도 가져오게

된다. 이런 말은 모두가 치료불가능으로 판정을 받게되니 수의사는 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경마일에 일어난 사고 이외도 마사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나 평소때 가진 기왕증으로 경주능력을 상실할 때는 마필평가위원회에서 역시 육용(肉用)으로 평가하여 도살장에 가기도 한다. 경제성 동물이므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애국계 수의사의 손을 거치게 되는 것이 때로는 안타까울 뿐이다.

골절이 아니고서도 말이 가진 못된 버릇이나 능력때문에 경주마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발주검사나 능력검사에서 연거퍼 3회이상 불합격을 받는 것이라든가, 경주중 악벽으로 경주에 심한 지장을 초래한 말에 대해서는 재결의 수의위원회에 의해 경주마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도살장으로 가던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게 된다.

경마를 위한 보건 연구 업무

마필보건소에는 연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연구종사자들도 경마일에는 모두가 경마집무부서에 편성되어 경마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테마도 기초의 학 분야보다는 경마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20년전인 1973년도에 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약 2주간의 경마를 중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인플루엔자가 어디서 들어왔던지, 원인은 어떻든간에 말이 병이 나서 경마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은 분명 수의사에게 치명적인 일일 것이다. 그후 우리는 말의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많은 연구와 대책을 세웠고, 현재는 그때와 같이 전면적으로 경마중단이라는 사태는 발생된 바가 없으나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예상치 못한 전염병들이 발생하여 출주율(出走率)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전염병에 대한 외국의 정보수집과 그의 국내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당국과 협조하는 일외에도 전 마필에 대해 전염병에 대한 항체가를 측정하여 그의 추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말의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국내시장이 너무 좁다보니 국내생산업체

들이 업무를 내지 못하여 일본뇌염백신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말 인플루엔자, 선역(腺疫), 마비강폐염(馬鼻腔肺炎)등이나 요즘 우리 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새로운 전염병으로서 게타바이러스(Getah virus)라고 하여 말의 호흡기 질환인데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우리의 방역담당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게타바이러스는 말에게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경미한 호흡기 질환으로서 이것에 걸리게 되면 경마출주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에게 말 한마리가 폐사하는 것 정도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나, 여러마리가 출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과천경마장이라는 좁은 지역에 무려 1600여두의 말을 집단사육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경마시행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안소에서 말의 개체 확인도 수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출주마가 만일 바뀌어서 출주를 했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육안적인 개체감별법으로서는 바뀔 가능성 때문에 전자파(電磁波)를 이용한 개체감별법의 도입을 위해 일련번호가 매겨진 마이크로칩을 마체에 삽입시켜 검출기로서 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연구하여 곧 실용단계에 들어왔다.

말이 하는 경주이므로 말의 경주능력의 향상은 곧 경주질의 향상과 연결되고,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을 내놓을 의무도 수의사는 가지고 있으며, 그를 위하여 모두가 집무부서에 근무하는데 직접적인 근무 이외도 경주질의 향상을 위한 연구업무도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말의 컨디션측정법이라든가 알루미늄편자 개발 등이다. 컨디션측정법을 연구하는 목적은 말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에 도달된 시기를 알아서 그 시기에 말을 출주시킴으로써 능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는 것이다. 말은 선천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후천적인 능력개발이 더 중요하다. 이는 조교(순치 및 능력 배양훈련)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말이 조교를 받지 않으면 그 능력은 최하의 수준에 있다가 조교의 시간이나 강도 등에 따라서 최상의 피크에 도달된다. 이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항상 말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때를 모르고 더 많은 조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능력이 떨어진다. 최상의 능력 피크에 도달하기 이전 혹은 과도한 조교로서 능력이 하향곡선으로 접어든 시기에 출주를 하게 되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치 못하므로 이 시기를 아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혈구침강속도로서 측정하는데 현재는 모든 말이 마사회 말이기 때문에 별로 실용화되고 있지 않으나 개인마주가 되면 경쟁의 심화로 이의 이용율이 증가될 것이다.

말의 편자도 능력발휘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편자뿐 아니라 장계(裝蹄)방법도 역시 중요해서 장제사(裝蹄師)란 별도의 직종이 있긴 하지만 총관장은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1992년 4월이전)에는 우리의 말들이 모두 쇠(鐵)로 만든 편자를 장착하여 경주에 임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알루미늄편자를 장착하고 경주에 출주를 하고 있다.

쇠로 만든 편자는 그의 무게가 하나에 약 250그램으로서 4개가 1킬로그램인데 비해 우리가 개발한 알루미늄편자는 1개당 80그램으로서 4개가 320그램에 불과하다. 약 700그램의 무게가 가볍게 된다. 그래서 경주의 결과는 1000미터를 달리는데 약 2~3초 정도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 무게가 가볍다 보니 경주중 말이 착지하는 방법이 달라져 운동기 질환의 발생이 약 50퍼센트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마필자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가벼운 편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는 1개당 무게가 50그램짜리를 개발중에 있다. 물론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사용해 왔으나 모두가 특허기간중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도용할 수 없으며, 일본제인 경우 우리보다 가격이 비싸 수입시는 무려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재를 외국것은 피하고 국내에서 개발하여 현재 국제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외국의 관련자들이 우리 편자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수출여부를 문의하기

도 한다.

그외도 수의사들은 수의기술 축적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말의 질병치료를 위한 꾸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한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를 단순한 수의산과학의 범위를 벗어나 어린말의 육성과 조교까지 또 어떤 수의사는 말의 혈통등록을 위한 준비나 혈액형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의사는 경마진행에 직접 필요한 인재인 기수나 조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마학(馬學)이라는 교과목을 수의학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마학은 크게 나누어서 4개분야이며 말의 사양관리, 말의 외모 및 생리구조, 질병, 호제(護蹄; 발굽을 보호하는 것)등의 과목이 직접 수의사가 교육시키는 과목이며, 마술학(馬術學)은 기본마술과 경주마술로 구분하는데 여기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마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90% 이상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말을 도입하는 반드시 수의사가 출장을 가서 경주마로서 적당한가를 체크하여 도입하게 된다. 이때 수의사는 말의 질병뿐 아니라 경주마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 이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국내산 말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물검사와 수의사

경마의 생명은 부정적인 요인이 없이 모든 것이 '룰'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는 것이다. 1992년도에 일부 조교사가 고객과 결탁하여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여 신문의 사회면을 요란히 장식하였던 것이 바로 공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경마에서 부정은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말을 타는 기수가 전능력을 발휘하지 않거나, 부담중량을 속이거나, 경주마에 약물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그의 능력을 조작하는 것 등이 있으나, 기수가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은 가장 크다고 하겠으나 이는 재결이라는 곳에서 엄격히 감시를 하고 있고, 말에게 약물을 투여

하는 것은 바로 마필보건소의 약물검사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은 두가지로서 흥분제와 진정제로 나눌 수 있는데 능력이 좋지 않은 말에게는 흥분제를 주어서 우승토록 할 것이고, 반대로 능력이 좋은 말에게 진정제를 주어서 능력을 쇠퇴시키려고 할 것이다.

경마라는 것은 돈이 걸린 경기이므로 범죄꾼들이 항상 노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수를 매수하려고 하던가, 마필관리원을 매수하여 각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매수한 마필관리원과 공모하여 말에게 약물을 투여하던가, 야간에 마사에 침입하여 말에게 주사를 놓고 가는 범죄가 있기 마련이다.

말에게 금지약물 투약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경마장에서는 약물검사실이 다른 어느 기관의 실험실보다 발달되어 있다. 물론 진료소가 있다보니 임상검사실이 설치되어 있고, 말이라는 고가의 동물을 취급하다보니 임상검사실의 기자재는 어느대학 병원의 임상검사실에 버금가는 것이기도 하나, 약물검사실은 인원이나 기술적인 면 혹은 기자재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로서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5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4대, 가스질량분석기가 3대, 액체질량분석기가 1대, 그 외 몇종의 기계들이 있으며, 기술수준은 세계경마화학자협회(AORC; 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st)에 정식 회원으로 3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낸 가검물을 검사하여 하나라도 틀리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다.

약물검사의 실시는 현재 경주전 검사와 경주 후 검사로 구분하는데 경주전 검사는 당일 출주할 말을 3시간전에 수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실험실에 보내면 당해경주 발주전 30분전에 최종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 지고, 경주후 검사는 경주를 하고 난 말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1~3착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주가 완료되면 수의사에 의해 뇨가 채취되고, 그외도 재결에서 약물검사를 의뢰한 재결지정마에 대해서도 역시 뇨를 받아 검사실에 보내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제주경마장에다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제주 경주마는 경주후 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나, 이웃 일본의 경우도 경주후 검사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경마장의 제도가 공정경마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약물의 투약을 받은 말을 사전에 색출하여 제외시킴으로써 고객에게는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물검사실에는 수의사와 화학 전공자가 함께 근무하는데 화학 전공자는 주로 분석화학을 하는데 비해서 수의사는 분석화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말의 운동생리와 약물의 약리작용까지도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맺 는 말

일반적으로 수의사 하면 동물의 진료를 본업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마장의 수의사는 다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진료도 중요하지만 경마라는 화려한 무대위에서 말들의 뒷치닥거리를 하는데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경마개척업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경마는 말이라는 운동용구를 사용함으로써 고장이 나지 않은 운동용구로서 하여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므로 수의사는 운동용구의 고장이 났는가 혹은 안전한가를 따지는 사람이라 함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고객이라는 상대는 어떻게 하던 공정경마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수의사가 하여야 할 역할이 엄청나다 하겠다. 예를 들어 고객들에게는 아주 인기마인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말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고객은 수의사에게 질책을 할 수도 있다.

수의사는 마필자원보호와 공정경마 수행이라는 두가지의 이율배반적인 일을 동시에 수행해

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마필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말 자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면 공정경마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경마장의 수의사는 수의기술을 혼자서 움켜쥐고 있을 수 없다. 상대는 축주인 마주(馬主), 그 말을 조련하는 조교사, 그 말을 직접 기승하는 기수와 말의 사양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원 그리고 경마고객이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의와 관련된다는 사항도 모두가 공개가 됨으로 그들로부터 때로는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수의용어보다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며, 그들과 부단한 대화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경마장 수의사이다.

과거 몇년전에 승마훈련원장으로 지방 승마장에 가면 그들이 나에게 푸념하는 것이 개업수의사들이 말 병도 좀 보아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현재의 우리 대학들의 교과과정에는 말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없으며,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것이 되겠기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의사라면 당연히 말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제 마사회 단일 마주에서 개인 마주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수의사도 마주로 등록된 분이 10여분이 넘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승열패의 원칙에 의해 한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며, 마주나 고객은 보다 좋은 수의사의 서비스를 바랄 것이므로 수의사로서는 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마도 더욱 발전될 것이고, 마필생산도 활발해질 것이며,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성화에 승마도 더욱 가열될 것에 대비하여 직접 이 업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수의사도 한번쯤 말에 관심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소개하는 바이다.